

주변을 아카이브하는 방법: 『OO박물관』

How to Archive the Surroundings: 『OO Museum』

공동저자 Co-author: 장영웅 Jang Hero
노네임프레스,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of (NO-NAME)PRESS

공동저자 Co-author: 박수연 Park Sooyeon
노네임프레스, 공동대표 Co-representative of (NO-NAME)PRESS

1. 들어가며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2. 연구 방법과 범위
2. 최근 아카이브의 동향과 '사적인' 아카이브
3. 수집 대상을 설정하기: '무엇'을 아카이브 하는가
 - 3.1. 개인의 주변 환경 혹은 관심사를 바탕으로 수집하기(직접 수집)
 - 3.2. 대상을 창조하거나 변형하여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창작과 변형)
 - 3.3. 기존 데이터를 특정 기준으로 재정의하고 재분류하기(데이터 재구성)
4. '사적인 아카이브' 실천하기, 『OO박물관』: '어떻게' 아카이브 하는가
 - 4.1. 『꿈 KKUM』
 - 4.2. 『추교은 글자 도감』
 - 4.3. 『Neo Ghost: 점거하는 유령들』
 - 4.4. 『OO박물관』의 의의와 기대
5. 마치며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년 2월 28일
Received Date: December 30, 2024
Accepted Date: January 27, 2025
Published Date: February 28, 2025

pp.030-055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030031

요약

아카이브는 공적 기록으로서 자료를 수집·보존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제도권 아카이브는 효율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주변부 서사를 배제하는 한계를 지녀왔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독립 출판의 확장은 기록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며, 개인적 관심과 경험을 반영한 '사적인 아카이브'가 대안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사적인 아카이브'의 개념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천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특히 노네임프레스의 『OO박물관』 시리즈를 중심으로, 꿈돌이 낙서를 재구성한 『꿈 KKUM』, 시트지 글자 작업을 도감화한 『추교은 글자 도감』, 재개발 지역을 배경으로 한 『Neo Ghost - 점거하는 유령들』을 통해 아카이브의 확장 가능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사적인 아카이브'가 사회·문화적 기록의 한계를 보완하고 창작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적 실천을 통해 휘발되기 쉬운 주변 문화를 기록하고 이를 사회적 담론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대적 아카이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핵심어

기록 보존, 데이터 재구성, 담론 형성, 미시사, 재맥락화, 지역성

Abstract

Archives have traditionally served as public records, systematically collecting, preserving, and managing materials. However, institutional archives, in their pursuit of efficiency and objectivity, have often excluded diverse voices and peripheral narratives. With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expansion of the independent publishing market, archival practices have evolved, drawing attention to "personal archives" as an alternative approach that reflects individual interests and experiences.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and examples of "personal archives" and explores its practical possibilities.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OO Museum* series by (NO-NAME)PRESS, focusing on *KKUM*, which reconstructs doodles of the character Kkumdori; *Choo Kyoeun's letter collection book*, which systematizes vinyl lettering works of an overlooked local figure; and *Neo Ghost: Occupying Ghosts* merges photography of redevelopment areas with a fictional narrative featuring a ghost character.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rgues that "personal archives" can addres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socio-cultural records while functioning as a tool for creative practice. Furthermore, by documenting ephemeral local cultures and connecting them to broader social discourse, this approach seeks to reexamine the evolving role of contemporary archives.

Keywords

archival preservation, data reconstruction, discourse formation, microhistory, recontextualization, locality

1. 들어가며

1.1. 연구 배경과 목적

아카이브는 전통적으로 역사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료를 보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후대에 전달하는 공적 기록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제도권 내 아카이브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특성상 자료의 중요성이 특정 권위에 의해 판단된다. 또한,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운영 방식으로 인해 다양성과 유연성 부족, 주변부 배제, 그리고 비주류적 관점의 간과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효율화' 중심의 제도권 아카이브는 결과적으로 사회 주변부의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와 서사를 기록의 장에서 배제하는 구조를 만들어왔다.

2000년대 이후 독립 출판 시장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아카이브의 개념을 전통적인 기록 보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는 기록물 생성의 진입 장벽을 낮췄고, SNS는 기록의 확산과 공유를 용이하게 하며 이를 일상적 활동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적·문화적 변화는 개인적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기록 행위를 확장시키며 대안적 아카이브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개인과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아카이브(이후 '사적인 아카이브'로 서술하겠다.)는 기존의 공적 기록 체계가 간과했던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며, 기록의 다층적 가치를 탐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독립 출판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아카이브와 형식 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사적인 아카이브' 문화가 확산되었다.

사적인 아카이브는 미시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개인적 경험과 지역적 맥락, 그리고 사회의 주변부에서 발생한 사건과 현상을 조명한다. 이는 단순히 자료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 주체의 주관적 판단과 창의적 해석을 통해 자료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동시에, 기존 기록 체계에서 배제된 다양한 목소리와 서사를 시각화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기록의 영역을 확장한다.

앞서 서술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출간된 『OO박물관』 시리즈는 이러한 사적인 아카이브의 실천적 사례로, 지역성과 주변부의 시각 문화를 탐구하고 재해석하며, 이를 공공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 전환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제도권에서 간과되었던 지역적 시각 문화를 발굴하고, 지역성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메시지를 사회에 발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두고, 기존 제도권 아카이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적인 아카이브의 이론적 배경 및 사례 연구와 실천적 사례인 출판물 『OO박물관』 시리즈 분석을 통해 소규모 아카이브가 기존 제도권 아카이브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다. 더 나아가, 개인적 실천이 사회적 담론 형성과 기록 체계 확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논의하며, 사적인 아카이브가 가진 사회적·문화적 의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라지기 쉬운 시각적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담론이 상호작용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한다.

1.2.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연구'와 '실천'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수행했고, 이를 통해 개인화된 아카이브의 이론적 고찰과 실천적 구현 과정을 탐구한다. 첫째, '연구' 파트에서는 공적 아카이브의 대안적 방법론으로 등장한 사적인 아카이브의 배경과 특징을 다룬다. 사적인 아카이브가 기존 제도권 아카이브와 차별화되는 방식을 분석하며, '2000년대 이후를 기점으로 개인과 소규모 집단이 창작 주체가 되어 생산된 출판물'로 구현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다음 세 가지 주요

032033

방법론을 통해 각 사례를 검토했다. 그 후에는 수집된 사례를 분류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사례를 분석했다.

- (1) 개인의 관심과 환경에서 출발한 자료 수집(직접 수집)
- (2) 대상을 창조하거나 변형하여 수집 대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창작과 변형)
- (3) 기존 데이터를 특정 기준으로 재정의하고 재분류하는 방식(데이터 재구성)

둘째, '실천' 파트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네임프레스의 『OO박물관』 시리즈의 기획·제작 과정을 사례로 다룬다. 이 과정에서 사적인 아카이브가 복디자인 행위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고,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을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아카이브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이를 책으로 구현하는 단계를 기록하고 소개함으로써 서술한다.

이 연구는 아카이브를 단순히 자료를 축적하고 분류하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자료의 수집 과정과 물성을 결합하여 수행하는 복디자인 행위 자체를 연구와 창작이 통합된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가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맥락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단순한 기록의 차원을 넘어선 아카이브의 실천적이고 확장된 가치를 탐구하고자 한다.

2. 최근 아카이브의 동향과 '사적인' 아카이브



[그림 1] (순서대로) 서울공예박물관 공예아카이브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GCC(군산회관) 아카이브,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 모던코리아

최근 공공 및 창작 영역에서 아카이브가 창작의 방법론으로 주목받으며 다양한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국공립 기관의 공개 아카이브 활동, 전용 열람 공간의 개방, 로컬 브랜드 관점에서의 아카이브 활동, 방송사가 축적한 영상 자료를 활용한 프로젝트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아카이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높이며, 공적 기록의 수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적 아카이브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 속에서,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접근법으로서의 사적인 아카이브 역시 독립 출판 신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기존 제도적 아카이브와는 차별화된 개인적이고 실험적인 기록 및 수집 활동으로, 창작의 한 장르로서 '아카이브'라는 분야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오늘날 창작자들이 '아카이브'라는 장르를 변주하여 생산하는 다양한 창작물 가운데 특히 출판물로 구현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OO박물관』 시리즈를 분석하며, 본 논의는 '무엇을' 아카이브 했는지와 '어떻게' 아카이브 했는지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3. 수집 대상 설정하기: '무엇'을 아카이브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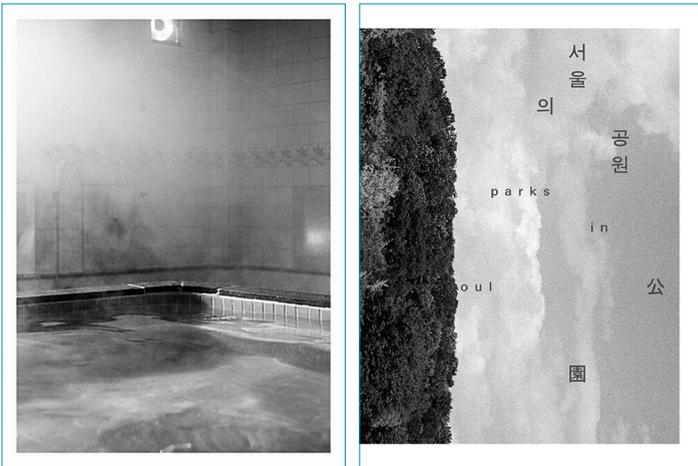
창작자 개인의 주관에 반영된 아카이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수집할지에 대한 탐구는 아카이브의 정체성이자 창작의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책에서 어떤 대상을 어떤 의도로 수집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사례를 수집했다.

- (1) 개인이 사적인 취향 혹은 목적에 따라 수집한 대상을 기반으로 제작된 아카이브 사례
- (2) 독립 출판이 활발해진 시점(2000년대 이후)에 제작된 출판물

이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인 의도를 바탕으로 한 수집과 독립 출판물의 경우, 필연적으로 창작자의 개성으로 작동되는 주관적 관점과 개인의 주변 환경이 강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아카이브에 대한 개인적 해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독립 출판물은 전통적인 출판 구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는 정치적 혹은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나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두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아카이브를 하나의 장르로 접근한 사례'를 보다 명확하고 선명하게 모으기 위함이다.

3.1. 개인의 주변 환경 혹은 관심사를 바탕으로 수집하기(직접 수집)

해당 사례는 수집 주체가 자신의 주변 환경, 관심사, 취향 등 사적 경험을 수집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창작자의 주관적 관점이 강하게 반영된 사례들로, 아카이브의 대상을 설정하고 수집하는 데 있어 개인의 '사적 기준'이 중심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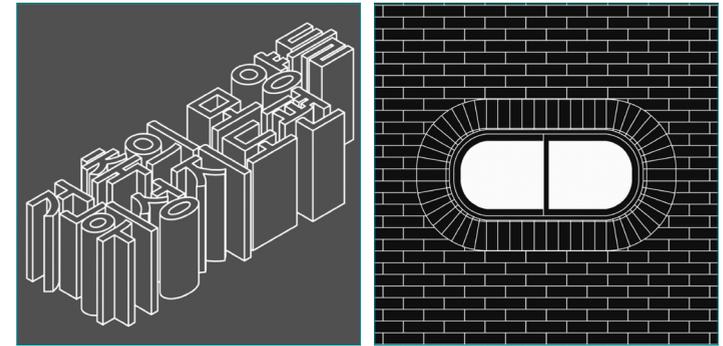


[그림 2] (왼쪽) 『서울의 목욕탕』, (오른쪽) 『서울의 공원』 표지

『서울의 목욕탕』(6699press, 2018)과 『서울의 공원』(6699press, 2021)은 빠르게 변모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사라져가는 장소를 기록한 사진 책으로, 개인의 관심과 기억을 출발점으로 제작되었다. 두 책은 사진가와 협업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소를 기록하고, 관련된 인물들의 인터뷰를 담아 개인적 서사와 다양한 목소리를 조명한다.

034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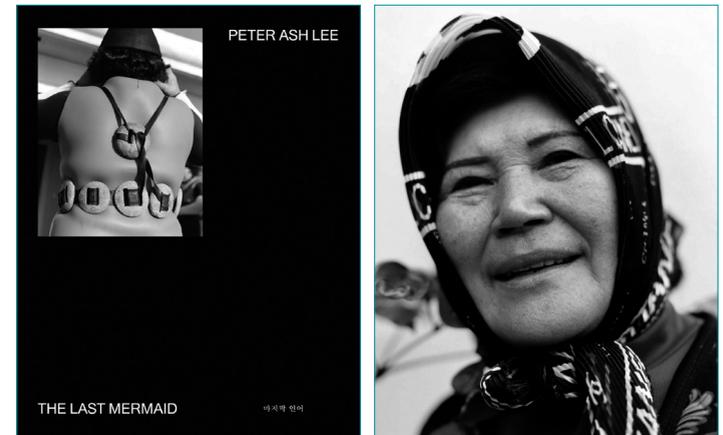
『서울의 목욕탕』은 오래된 공중목욕탕을, 『서울의 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¹로 인해 사라져가는 공원을 대상으로 삼아, 물리적 장소와 그에 얽힌 기억을 아카이브화 했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개인적 관점에서 시작된 아카이브 행위가 도시의 변화와 주변부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왼쪽) 『건축의 모양들-위성지도편』, (오른쪽) 『건축의 모양들-창문편』 표지

『건축의 모양들-지붕 편』(신지혜, 2016), 『건축의 모양들-창문 편』(신지혜, 2020), 『건축의 모양들-위성지도 편』(신지혜, 2021)은 건축학 전공자이자 실무자로 활동한 연구자가 건축물의 특정 요소를 개인적 관점에서 수집·기록한 아카이브 책이다. 연구자는 지붕, 창문, 위성 지도 등 아카이브의 주요 소재가 된 '건축'에 관련된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요소를 포착하여, 그 기능과 미적 가치를 탐구하며 이를 사진과 텍스트로 정리했다. 이러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건축 기록에서 간과되기 쉬운 세부 요소를 조명함으로써 건축 관련 연구자의 당사자성이 드러나는 관점을 통해 재구성된 건축의 이미지를 공유한다.

피터 애시 리(Peter Ash Lee)의 『마지막 인어 The Last Mermaid』(Peter Ash Lee,



[그림 4] (왼쪽) 『마지막인어The Last Mermaid』 표지, (오른쪽) 도판일부

1 2000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2020년 7월, 여의도 면적의 124배, 축구장 5만여 개 만큼의 면적인 340k㎡가 실효(공원 해제), 2025년까지 164k㎡가 추가 해제를 예고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 이후, 도시공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름다운재단. www.ecoseoul.or.kr

2023)는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 해녀 문화를 기록한 사진 책이다. 제주도를 여행하던 중 한 젊은 해녀와 대화를 나눈 경험을 계기로 제작된 이 책은, 해녀들의 삶과 작업 환경을 가까이에서 촬영하며 주류 기록에서 다루이지 않는 문화적 정체성을 담았다.

이 프로젝트는 작가의 개인적 관심과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록의 대상을 주관적 시각으로 재조명했다. 『마지막 인어』는 소멸 위기에 놓인 문화를 기록함으로써, 개인적 아카이브가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림 5] Sasa[44] 개인전 《영망》 도록 일부, 출처: 슬기와 민 홈페이지

이외에도, 자신이 소비한 물품 등 주변 환경과 생활을 강박적으로 기록하고 모은 Sasa[44]의 주요 창작물 역시 이 범주에 해당된다. Sasa[44]의 주요 창작물은 자신이 소비한 물품과 일상 환경을 강박적으로 기록하고 수집하며, 이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기록한다. 영수증, 호텔 어메니티, 특정 기간 동안 먹은 음식과 마신 음료의 병 등 사소하고 개인적인 물품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사고하는 ‘공공 기록의 범주’에 들지 않을 법한 수집 자료들을 전시한다.

그의 작업은 일상의 사소한 흔적들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독창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통해 시대와 문화를 통찰적으로 엮어낸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집을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현시대의 사회·문화적 흐름을 포착하고 이를 새롭게 조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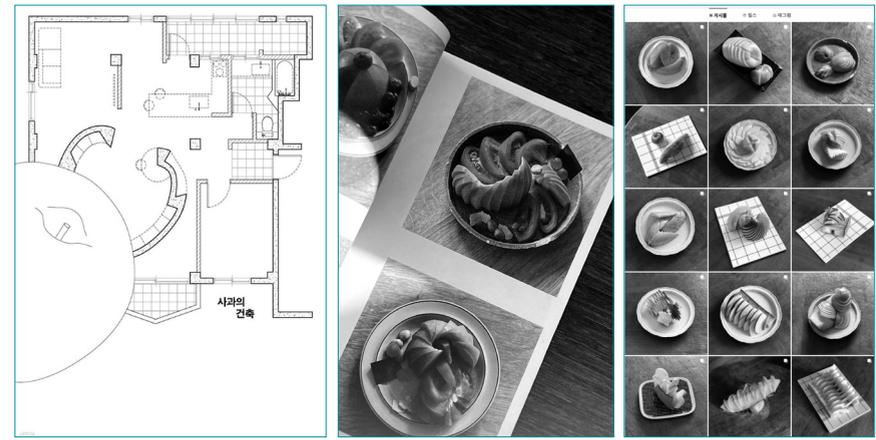
이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 구성되며, 아카이브를 통해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는 제도권이 주도하는 아카이브의 대상에서 벗겨져 나가 있는 것을 수집하거나, 대상의 본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색다른 맥락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개인적 아카이브는 대상을 둘러싼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는 동력이 되며, 출판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심미적 만족과 개인적 성취를 제공하는 매체로 기능한다. 이는 아카이브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창작과 표현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3.2. 대상을 창조하거나 변형하여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창작과 변형)

이 분류는 사적 경험 그 자체를 수집 대상으로 삼는 앞선 사례와는 달리, 창작 주체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창작하거나, 기존 대상을 변형 혹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재맥락화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036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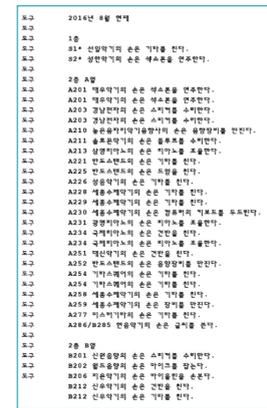


[그림 6] (왼쪽) 『사과의 건축』 표지와 내지, (오른쪽) @achim.apple 인스타그램 피드

건축가가 매일 사과와 제철 음식을 함께 플레이팅 한 과일 접시를, 편집자가 지속적으로 사진으로 기록하여 제작한 『사과의 건축』(주로, 2023)은 창작된 대상을 아카이브 한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 콘텐츠는 ‘아침에 사과’라는 프로젝트로, 2020년 5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SNS에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변주되어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플레이팅 행위는 전통적인 아카이브 개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개인적 경험을 아카이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사례는 SNS라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미지가 수집되고 편집되는 과정을 통해 기록이 창작 행위로 변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플레이팅을 창작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아카이브 하는 방식은 기록이 단순히 자료의 축적을 넘어, 창의적이고 개인적인 표현의 방식으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과의 건축』 프로젝트는 이러한 아카이브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순간들이 어떻게 예술적 기록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기록이 창작과 결합될 때, 그것은 단순한 보존의 의미를 넘어서, 그 자체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생성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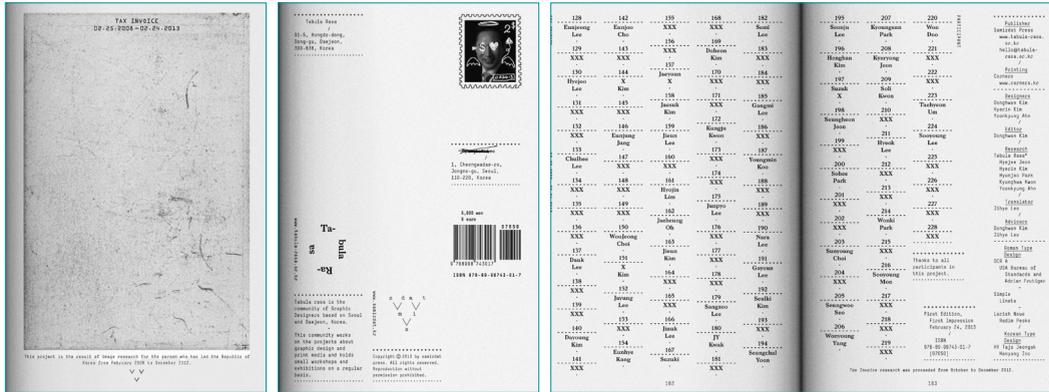


[그림 7] 『고수의 도구』 표지와 내지

낙원상가의 5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고수의 도구』(소환사, 2019)는 ‘고수의 도구’라는 맥락으로 ‘손’이라는 대상을 창작 모티프로 활용한 흥미로운 아카이브 사례이다. 이 책은 상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취하는 손동작을 포착하며, 악기를 연주하거나 수리하고

조율하는 장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전문성을 기록했다.

상인의 전문성을 손이라는 도구를 통해 재현하려는 시도는 기록, 혹은 수집이라는 기존 아카이브의 개념을 확장하고, 사람들의 기술과 경험을 기념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다. 여기서 손은 단순한 신체 일부를 넘어, 상인의 노하우와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상징'으로서 아카이브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수집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정보를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경험과 능력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사례는 아카이브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고, 기록의 시각적·감각적 차원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 8] 『Tax Invoice』 앞표지와 뒷표지, 내지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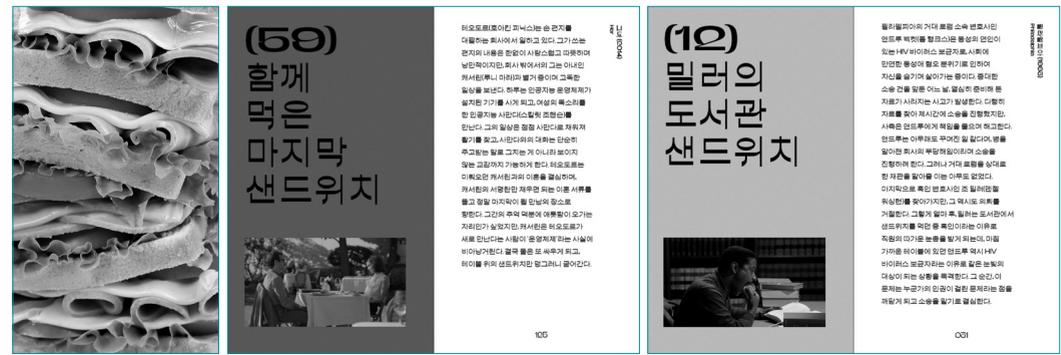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인 『Tax Invoice』(samizdat, 2013)는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 출판물이라는 점에서 앞선 사례와 유사하지만, 설문 방식 자체가 비가시적인 출판의 일부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과거 지도자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화장실에 낙서를 위한 메모 장치를 놓고, 참여자들에게 대상에 대한 일련의 경험에 근거해 기록된 낙서를 이미지로 수집하여 책으로 엮은 사례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대상에 대한 낙서이자, 시민들이 공유하는 이미지로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대상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황을 설계함으로써 대상 생성 과정 자체를 하나의 퍼포먼스로 확장시킨 사례이다. 이는 넓은 의미의 (복)디자인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아카이브의 주제에 맞추어 대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대상을 직접 창작하여 수집 대상으로 삼는 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수집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창작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시 말해, 이는 '수집'을 위한 '창작'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3.3. 기존 데이터를 특정 기준으로 재정의하고 재분류하기(데이터 재구성)

이 방법론은 개인의 관점으로 직접 대상을 수집하는 방식(ㄱ, ㄴ 사례)과는 달리, 이미 수집되었거나 생산된 자료를 개인의 새로운 관점에 기반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접근법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분류 기준을 도출하여 자료를 재구성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9] 『영화 속 샌드위치 도감』 표지와 내지 일부

예를 들어, 샌드위치를 좋아한다는 사적 취향 및 관심사로부터 출발하여 약 70편의 영화 속에서 샌드위치가 배경이나 소품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수집한 『영화 속 샌드위치 도감』(샌드위치 프레스, 2018)은 특정 소재를 중심으로 이미 생산된 이미지를 재구성한 사례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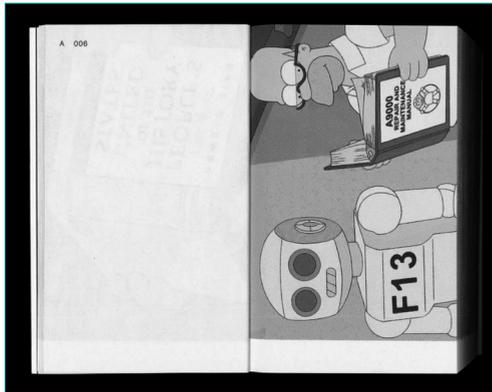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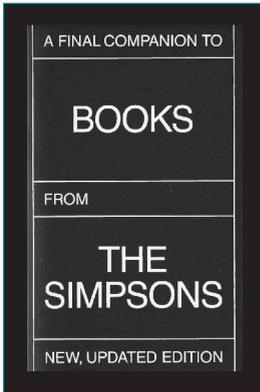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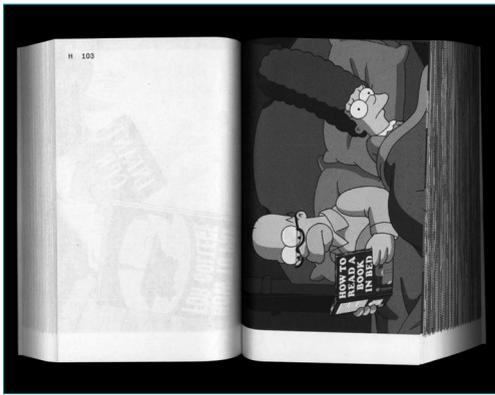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유명 TV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책' 이미지를 수집하여 제작한 롤로 프레스의 『A Final Companion to Books from the Simpsons』(Rollo Press, 2018)도 같은 범주에 속하는 아카이브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애니메이션 속 약 330권의 도서가 등장하며, 알파벳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애니메이션 속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에서 책 이미지를 특별한 시각으로 포착하여 모은 이 작업은 일상적인 장면에 숨어있는 작은 세부 요소를 새롭게 조명하며 이 책 저자의 시점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특정 출판사가 발간한 『세계문학전집 시리즈』 중 200권을 선정하고, 각 책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을 발췌하여 엮은 『다음이 뭐야, 다음이 뭐야』(홍소이, 2024)는 수집된 텍스트를 재분류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문장을 압축하여 선택함으로써, 세계문학전집의 처음과 마지막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한다. 또한, 텍스트를 시각적 재료로 변형하고, 정보 처리의 규칙을 활용하여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다.

그래픽 디자이너 김영나가 과거에 생산했던 이미지들을 재배열하고 재구성하여 복디자인 행위를 통해 엮은 『김영나: 자화상』(프로파간다, 화민, 미디어버스 공동 출판, 2024)은 '재정의'와 '재구성'을 통해 기존 데이터를 새롭게 해석한 흥미로운 사례이다. 데이터를 제공한 제공자, 이를 재정의한 연구자, 나아가 이를 책으로 엮은 복디자이너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아카이브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협업 사례로 볼 수 있다. 촬영이나 창작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도 타인이 만든 이미지나 공개된 자료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편집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아카이브가 이루어진 점이 특징적이다.

이 방법론은 개인이 수집 대상을 발굴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대신, 이미 생산된 자료들을 창작자의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여 재배열하거나 재편집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아카이브가 구현된다. 앞선 두 방식에 비해 필연적으로 더 적극적인 '복디자인'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창작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도를 바탕으로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038039



[그림 10] 『A Final Companion to Books from the Simpsons』 표지와 내지 일부



[그림 11] 『다음이 뭐야, 다음이 뭐야』 전시 설치 이미지

040041



[그림 12] 『김영나: 자화상』 표지와 내지 일부

4. '사적인 아카이브' 실천하기, 『OO박물관』: '어떻게' 아카이브 하는가

아카이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집 대상을 선택하고 분류하는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중 일부를 앞서 공유했다. 이 장에서는 수집한 대상들이 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대해 이 연구의 주체가 직접 수행한 『OO박물관』 프로젝트라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통해 서술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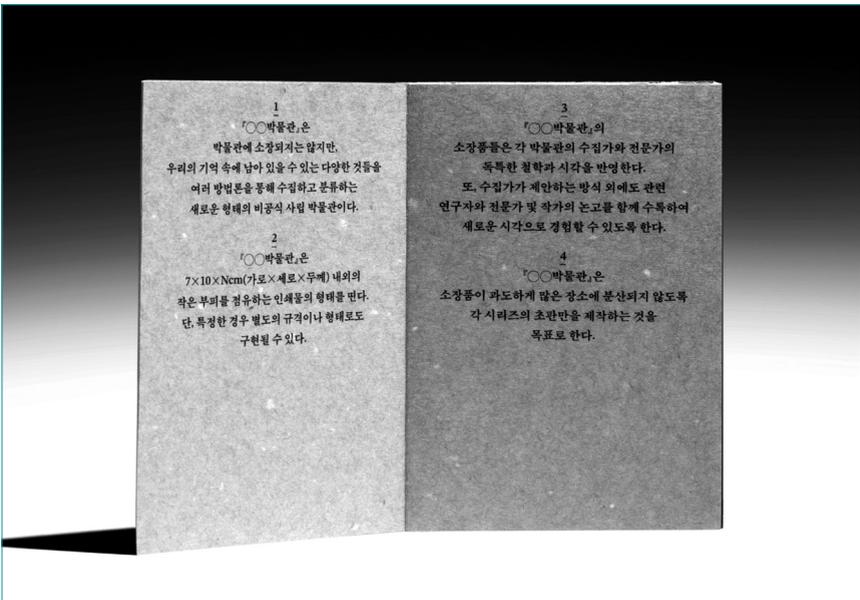
아카이브를 다루는 책에서는 복디자인의 기본 요소로 여겨지는 표지, 내지, 레이아웃, 조판 등의 지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수집된 대상을 배열하는 의도와 방식 또한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 과정은 단순히 시각적 구성을 넘어, 동등하게 수집된 대상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로 이어지며, 대상을 수집하는 과정을 마친 이후 창작자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정치적 선택의 순간이기도 하다. 어떤 대상을 앞에 배열할지, 어떤 대상의 크기를 크거나 작게 설정할지, 혹은 어떤 대상을 제외할지에 대한 결정들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복디자인' 행위에서는 일종의 '시퀀스 묶음'으로 여겨지는 책에서 창작자가 어떤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아카이브를 해석한다면, 책을 단순히 정보의 수단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창작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 『OO박물관』은 이와 같은 연구의 실천의 연장선에 있다. "개인이 감각하는 모든 것이 아카이브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책은 '지역'²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수집하고, 수집 대상과 매체,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관계를 출판의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물관의 소장품 도록이 소장품을 바탕으로 연구한 내용과 관련된 글을 통해 새로운 논의로 나아가듯, 『OO박물관』 또한 기획자의 글에 더해 주제를 확장시킬 수 있는 외부 필진의 글을 더함으로써 단순한 아카이브를 넘어 새로운 담론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책의 표지 뒷면에 있는 『OO박물관』을 소개하는 매니페스토는 다음과 같다.

2 여기에서 표현하는 지역이란, 정치적 개념이나 지도상의 경계로 구분되는 사회구조적인 정의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 로컬리티(locality) 개념에 더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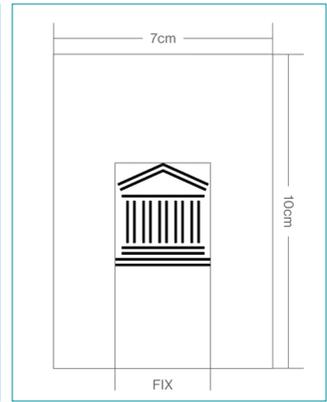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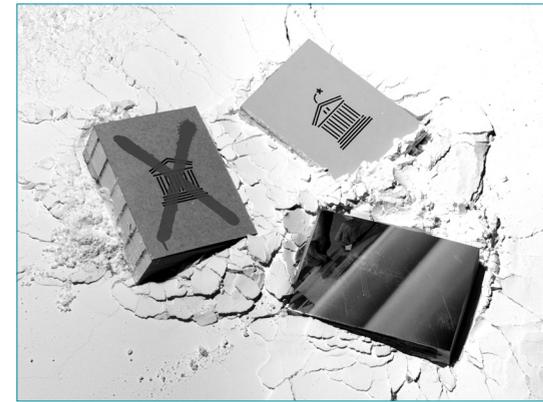
[그림 13] 『OO박물관』 메니페스토

- (1) 『OO박물관』은 우리의 삶에 공공 공간으로 자리하는 박물관에 소장되지 않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산들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수집하고 분류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공식 사립 박물관이다.
- (2) 『OO박물관』은 7×10×(미정)mm 내외의 작은 부피를 점유하는 인쇄물의 형태를 띤다. 단, 특정한 경우 별도의 규격이나 형태로도 구현될 수 있다.
- (3) 『OO박물관』 안에 담긴 소장품들은 각 박물관의 수집가와 전문가의 독특한 철학과 시각을 반영한다. 또, 수집가가 제안하는 방식 외에도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 및 작가의 논고를 함께 수록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소장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4) 『OO박물관』은 소장품이 많은 장소에 분산되지 않도록 시리즈의 초판만을 제작하는 것을 방침으로 한다.

이는 대상을 수집하고 책으로 엮어 배포되는 순간까지, 본 시리즈가 아카이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선언이다. 이 책은 두 가지 주요 물리적 제약 조건을 가진다.

- (1) 책의 규격은 손바닥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한 크기(7×10mm)로 제작한다.
- (2) 표지에는 동일한 크기와 위치에 심볼을 적용한다.

042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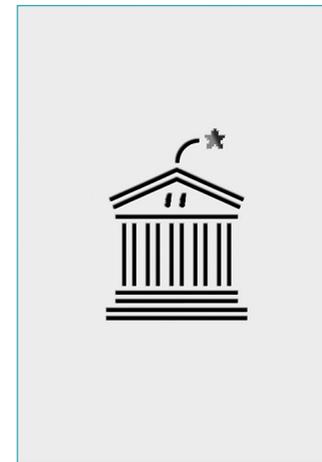
[그림 14] (왼쪽) 『OO박물관』 대표 이미지, (오른쪽) 표지 고정 레이아웃

손바닥 크기의 판형은 즉흥적인 도구(예: 스마트폰)로 촬영된 사진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표지에 반복적으로 배치된 심볼은 시각적 통일성을 통해 시리즈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수집 대상의 본질을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각 수집 대상을 분류하고 배열하는 방식, 물리적인 종이의 선택, 폰트, 내지 레이아웃 등의 북디자인 방법론은 개별 호의 주제에 따라 개성 있게 적용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제약 조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내부 콘텐츠인 아카이브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했다.

이제부터 세 권의 책을 소개하며 각 책의 수집 대상과 이를 책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4.1. 『꿈 KK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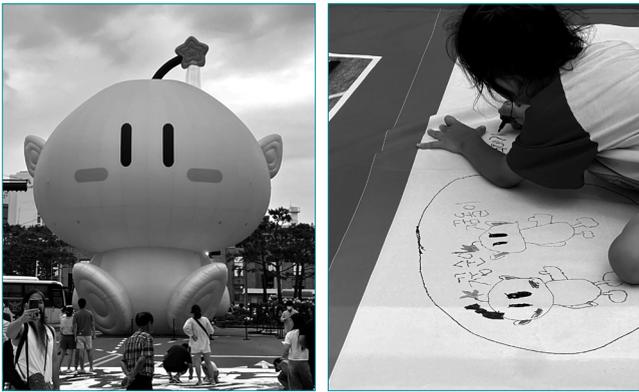
[그림 15] 『꿈 KKUM』 표지

이 책은 수집가가 지역 축제에서 발견한 마스코트 '꿈돌이'의 낙서 이미지를 모아 엮은 사례이다. 이는 개인의 주변 환경 및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자료 수집 방식을 적용하여 제작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16] 곰돌이 관련 수집 이미지 모음

책의 제작 배경은 다음과 같다. 수집가³는 지역 도시 곳곳에 산발적으로 남아 있는 곰돌이 캐릭터에 주목했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원래의 형태와 의미가 변형되며, 대중적 소비 과정에서 다양한 맥락으로 해석된 이 캐릭터를 촬영하여 기록한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아카이브를 위한 자료로 축적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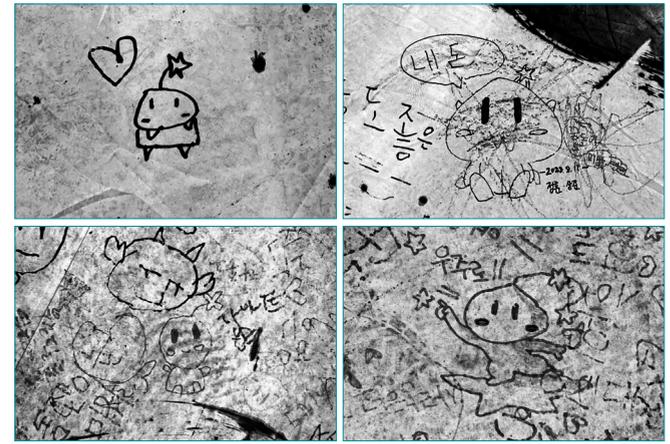
[그림 17] (왼쪽) 0시축제 포토존(2023), (오른쪽) 0시축제 포토존 아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린 아이(2024)

특히 흥미를 끌었던 자료는 작년에 열린 지역 축제의 한 공간에서 발견된 '곰돌이 낙서'였다. 대형 캐릭터 벌룬 앞에서 진행된 라이브 서예 퍼포먼스를 위해 깔아둔 대형 캔버스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낙서한 곰돌이 캐릭터가 가득했다. 수집가에게는 이 이례적인 풍경이 시민과 지역 캐릭터가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풍경으로 읽혀, 바닥의 낙서를 하나씩 들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집했다. 그러던 중, 곰돌이 캐릭터가 당시 공모의 낙선작 중 하나였던 한 시민의 '낙서'로부터 출발했다는 내용을 한 연구지⁴에서 접하게 되었다. 이는 30주년을 맞아 '매끄러운' 벡터

3 대상을 수집한 주체를 '수집가'로 명명한다.

4 『새시각#01: 대전엑스포'93』 아키텐입, 2021, p.160, 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 디자인실장 정석원 인터뷰에서 발췌

044045



[그림 18] 곰돌이 낙서 모음 0시축제 포토존 바닥에 있는 낙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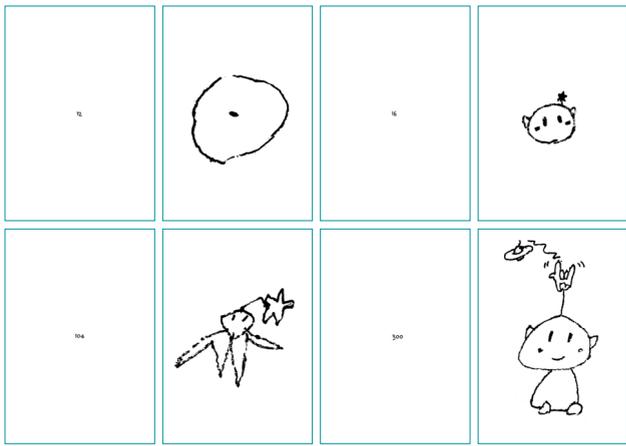
이미지로 재탄생한 캐릭터⁵가 다시 본래의 '낙서'라는 정체성으로 회귀했다는 점에서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 이야기는 기존에 모아두었던 낙서 이미지를 아카이브의 주요 주제로 삼는 계기가 되는 내용이었다.



[그림 19] 『곰 KKUM』 책 이미지

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낙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현장에서 촬영한 원본 이미지와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재가공한 이미지를 조합해 4페이지에 걸쳐 배치했으며, 얇은 종이에 인쇄하여 이미지와 낙서가 뒷면과 뒤 페이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구성했다. 이러한 방식은 수집 대상의 본질과 함께 그것이 발견된 현장의 맥락을 동시에 전달하기 위한 시도였다.

5 곰돌이 캐릭터의 30주년을 맞아, 2023년 대전광역시와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주도로 '곰씨 패밀리'가 탄생했다.



[그림 20] 『꿈 KKUM』 내지 일부

이미지의 배열 또한 서사적 흐름을 고려했다. 가장 추상적인 낙서에서 시작하여 점차 구체적인 형태로 이어지며, 꿈돌이 외의 다른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복잡성과 디테일이 더해지는 순서를 따랐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이미지 간의 연속성을 통해 낙서의 변화를 독자가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림 21] 『꿈 KKUM』 기획의 글 부분

책의 후반부에는 시각문화 연구자 전해정의 논고와 기획의 글이 수록되었다. 그는 대전을 직접 경험하며 꿈돌이 캐릭터의 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고, 지역 축제와 지역 행정이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이 책이 '귀여운 이미지 아카이브'를 넘어 도시의 이면을 조명하고,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가지고자 했다.

『꿈 KKUM』은 '시민들이 그린 낙서 캐릭터'라는 이미지 자료를 바탕으로, '30년 전에 만들어진 마스코트의 정체성'이라는 역사적 대상을 연결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새로운 맥락을 구성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복디자인 행위를 통해 수집의 의미를 확장하며, 아카이브가 개인의 관심사와 지역적 맥락에 기반하여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작용한다.

이 책의 의의는 여러 측면에서 부각된다. 첫째,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낙서에 집중하며, 축제가 끝난 후 사라지는 일시적인 그림들을 주목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캐릭터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시민들이 각자의 관념 속에서 그린 꿈돌이를 통해 캐릭터의 조형적 특성, 시민과 캐릭터와의 관계, 더해서 공공의 행정부가 캐릭터의 입을 빌려 시민에게 발신하려는

046047

메시지 등 아카이브를 다양한 시각과 주제로 해석하게 하며 담론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이는 아카이브로 대표되는 풍경의 일부를 문화적 및 사회적 맥락을 더욱 풍성하게 담아내며, 아카이브 작업의 의미와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사례로써 의의가 있다.

4.2. 『추교은 글자 도감』



[그림 22] 『추교은 글자 도감』 표지

2편 『추교은 글자 도감』은 수집가가 위치한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지만, 점차 사라져가는 시트지 장인의 글자 작업을 기록하고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주변 환경에서 발견한 대상을 수집했다는 점에서 1편 『꿈 KKUM』과 동일한 수집 방법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 전통적인 아카이브의 표현 양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도판을 수집하고 배열하는 아카이브의 기본 구조를 따르면서도 제도권 시야에서 벗어난 지역 인물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제도권에서 수행하는 인물 아카이브와 동일한 목표를 지닌다.



[그림 23] 추교은 시트지 글자 수집 이미지 모음

이 글자를 수집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대전·충청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미지인 시트지 간판은 특히 구도심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간판은 손맛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그중에서도 '동일한 글꼴 양식'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글자뿐만 아니라 기호와 그림으로 이루어진 시트지도 조형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이미지 수집의 동기가 되었다.



[그림 24] 추교은 장인 글자 작업 모습

그러던 중 우연히 이 글자의 주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작업물임을 알게 되었다. 핸드폰조차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 장인을 수소문 끝에 찾아가 만난 뒤, 글자를 직접 의뢰하며 이 장인의 작업 방식과 그 안에 담긴 고유한 방법론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25] 『추교은 글자 도감』 레이아웃 설명



[그림 26] 『추교은 글자 도감』 내지

048049

이 책은 장인의 글자들이 '도감' 형식으로 배열했다. 도감 형식의 체계적 배열에서 영감을 받아 글자와 장소 등을 기준으로 한 인덱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미지를 정리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시트지의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 같은 시트지라도 촬영 시점에 따라 구현된 컬러가 모두 달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시트지의 물리적 속성과 시간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흥미로운 요소였다.

지역적 기록과 역사는 대개 제도권 안에서 '가시적인' 업적을 이룬 인물을 조명하는 데 집중하지만, 이 책은 추교은 장인과 같은 미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서사를 발견하고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인은 수십 년 동안 작업을 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언어와 스타일을 구축해 왔다. 그의 글자 스타일은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조형성을 지니고 있어, 한글 조형을 연구하는 디자이너와 학자들에게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평가받았다. 수집가는 그의 작업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그의 수십 년간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글자의 조형적·역사적 맥락을 담아냈다. 고유한 스타일을 지닌 수작업 장인들이 점차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이 책은 그들의 작업을 문화적·학문적 관점에서 보존한 중요한 기록물이다. 아울러, 지역 재개발로 인해 점점 자취를 감추는 시트지 글자와 장인의 흔적을 담아 그 중요성을 다시금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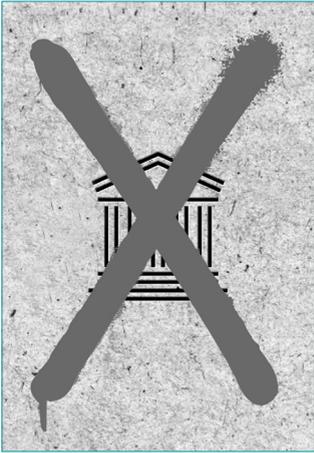


[그림 27] 『추교은 글자 도감』 논고

책의 후반부에는 글자를 수집하며 추교은 장인과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획의 글을 작성했지만, 의도적으로 인터뷰 형식을 배제하여 '인물'을 부각시키는 기존의 아카이브 방식을 탈피해 도판 중심의 배열을 통해 책의 페이지가 흐를수록 '인물'의 존재감이 서서히 드러나는 서사적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주변'의 미시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둘러싼 사회적인 현상을 발견하고 담론을 촉발하고자 하는 『OO박물관』 시리즈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외부 기고문 또한 산돌에서 근무했던 위예진 디자이너가 추교은 장인의 '글자'에 대한 연구 글을 집필하여 '인물' 중심의 서사 대신, '현상' 중심의 아카이브를 꾀했다.

『추교은 글자 도감』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시트지 글자들이 독창적인 조형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그 글자들 뒤에 자리한 '추교은'이라는 한 장인의 존재를 전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 책은 첫 번째 책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에서 발견한 대상을 기록했지만, 방대한 양의 도판을 배열하기 위해 선택한 '도감'의 형식을 빌려 글자와 장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시트지 글자들의 특징과 그 안의 시간성을 은유했다는 데에 구성의 차이가 있다.

4.3. Neo Ghost—점거하는 유령들



[그림 28] 『Neo Ghost—점거하는 유령들』 표지

이 책은 재개발로 인해 사라져가는 지역을 기록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들’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유령이 함께하는 풍경을 연출한 사진으로 담아낸 책이다. 여기에 사진을 재해석하여 집필한 함윤이 소설가의 짧은 소설을 더해, 사진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사진 소설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책은 아카이브를 위한 수집 방법에서 앞선 두 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앞선 두 책이 개인의 사적 관심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면, 이 책에 수록된 이미지는 과거에 사라져가는 공간을 기록하기 위해 창작된 사진 연작 〈동네의 유령〉을 활용했다. 이는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OO박물관』 프로젝트를 위해 소설과 함께 재구성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29] 『Neo Ghost—점거하는 유령들』 내지

050051



[그림 30] (왼쪽) 졸업 전시 〈동네의 유령〉 설치 전경, (오른쪽) 당시 촬영한 유령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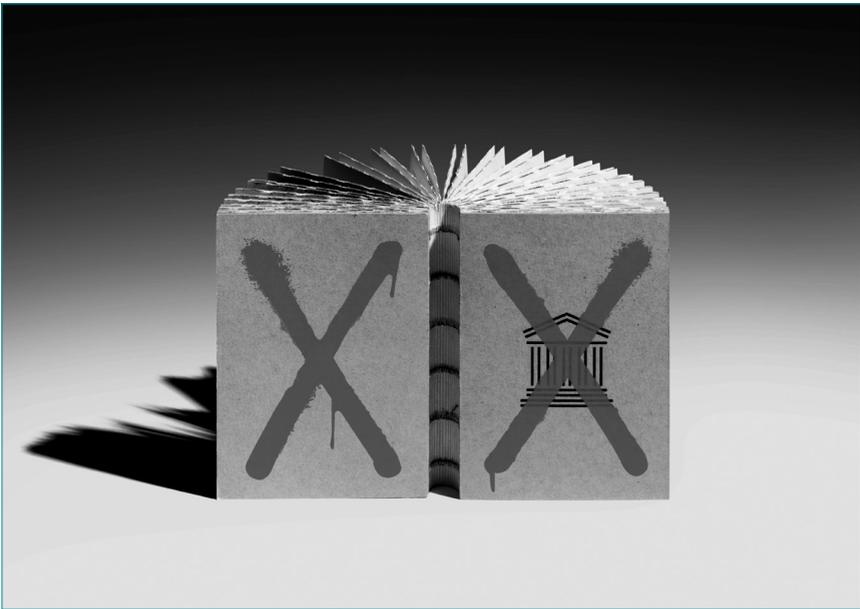


[그림 31] <페르소나: 나 아닌 모든 나> 설치 전경 및 작품 이미지

이 책은 창작을 통해 수집하는 방법과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재맥락화하는 방법,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례이다. 또한 기존의 작품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위치값과 관련 정보 등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이미지 자체만을 수용하고 그를 재해석하여 집필한 소설가의 글과 배열되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재맥락화’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이미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하고 글과 결합함으로써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고, 새로운 아카이브로서 생동감을 넣어넣었다.

해상이 되는 사진 연작은 ‘사라진 공간’을 조명했던 2019년 졸업 전시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열린 전시⁶에서는 생동이 사라진 도시의 공실을

6 <페르소나: 나 아닌 모든 나>, 2022.5.24.-7.17.,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기획: 우리원



[그림 32] 『Neo Ghost—점거하는 유령들』

주제로 다루며 설치, 사진, 영상 작업으로 발전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간에 머물던 유령들은 다른 매체로 이주하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2년마다 전시와 장소를 옮기는 모습을 두고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마다 옮겨 다니는 모습 같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후 『OO박물관』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위해 함윤이 소설가와 함께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접하게 된 ‘Squatting’⁷ 개념은 이는 그가 머물렀던 환경에서 비롯된 개념이었으며, 이

7 스콧(squatting, 무단거주)은 다른 사람의 비어있는 건축물의 위법한 점거 행위로서, 빈 공간을 주거공간 혹은 모임장소로 무단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052053

개념을 바탕으로 ‘공간’을 떠돌던 유령들이 ‘책’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그리게 되었다. 이들에게 더 공간다운 공간을 내어주고 싶다는 의도에서 프렌치 폴드 제본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했으며, 책이라는 물성을 통해 실제 공간을 구현했다. 또한,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를 상징하는 X 표식을 커버에 두어 유령이 책을 ‘점거’했다는 서사를 상징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은 기존의 사진이라는 재료에 텍스트라는 새로운 재료를 덧붙임으로써 아카이브의 맥락을 변주하고, 복디자인의 영역에서도 이미지와 텍스트를 서로 연결된 무성영화처럼 보이거나 전혀 다른 평행적 이야기처럼 보이도록 혼란한 내러티브를 의도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아카이브의 기본 개념인 수집-분류 행위를 넘어 이미 수집된 대상을 재맥락화하기 위해 기존 대상의 맥락을 제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결합하는 방법의 복디자인 수행의 결과물이다. 이는 ‘아카이브’의 기존 목적인 ‘보존과 전송’이라는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아카이브’의 본질적 구조를 해체하고 수집 대상이 가진 맥락을 재정의하는 방법론을 통해 예술적 성취를 얻기 위한 창작의 수단 혹은 재료로서 기능하는 데 의의가 있다.

4.4 『OO박물관』의 의의와 기대

앞에서 서술했듯이, 『OO박물관』 시리즈는 저자의 ‘주변’이라는 지역성을 배경으로, ‘사적인 아카이브’를 다양한 형식으로 실험한 책이다. 겉으로는 실험적인 형식을 띠면서도, 각 소재에 얽힌 사회문화적 의제를 발신하려는 내밀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지역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가치를 사회와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례로서 작동하며 미래의 시도에 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음을 기대한다.

이런 실험은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현시점까지 세 권의 책으로 구현되었다. 수집 대상을 선정하고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그를 책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복디자인 화법을 통해 구현되었다는 점은 동시대의 복디자이너로서의 성취를 넘어, 동시대 복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이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5. 마치며

이 연구의 제목은 ‘주변을 아카이브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주변’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중심부에서 소외된 가치나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서 비롯된 인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주변을 아카이브 하는 행위’는 기존 제도권에서 조명하지 못한 빈 공간에 주목하며, 그 안에 존재하는 사건들을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아카이브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이다.

연구를 진행하며, 아카이브를 단순한 자료 축적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로 확장하기 위해 ‘책’이라는 형식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아카이브가 미시적 관점에서 ‘주변’을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내며, 다양한 문화적 서사를 사회적 맥락으로 연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일상의 시각적 문화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맥락이 상호작용 하는 새로운 방식을 탐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카이브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개인이 자신의 삶과 주변을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재발견함으로써, 아카이브가 일상의 태도와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

참고문헌

- 윤승현, (2022), 「그래픽 디자인 제작 도구로서의 아카이브」, 『엑스트라 아카이브 5』, 한국디자인사학회
- 김달진, 「아카이브에 대한 질의 답변서」, 『서울아트가이드』
<http://www.daljin.com/column/17139>
- 『새시각#01: 대전엑스포 '93』, 아키타입, 2021
- 『서울의 목욕탕』, 6699press, 2018
- 『서울의 공원』, 6699press, 2021
- 『건축의 모양들-지붕편』, 신지혜, 2016
- 『건축의 모양들-창문편』, 신지혜, 2020
- 『건축의 모양들-위성지도편』, 신지혜, 2021
- 『마지막 인어 The Last Mermaid』, Peter Ash Lee, 2023
- 『Sasa[44]의 개인전 “영망”』, 일민미술관, 워크룸 프레스 공동 발행, 2018
- 『사과의 건축』, 주로, 2023
- 『고수의 도구』, 소환사, 2019
- 『Tax Invoice』, samizdat, 2013
- 『영화 속 샌드위치 도감』, 샌드위치 프레스, 2018
- 『A Final Companion to Books from the Simpsons』, Rollo Press, 2018
- 『다음이 뭐야, 다음이 뭐야』, 홍소이, 2024
- 『김영나: 자화상』, 프로파간다, 화원, 미디어버스 공동 출판, 2024

노네임프레스(NO-NAME)PRESS

2019년부터 대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NO-BOUNDARY, 경계 없음’이라는 가치 내에서 담고 있는 물리적 영역과 수행하는 모든 분야에 경계를 두지 않고 다양한 협업자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한 출판, 지역, 예술 문화 등에 대한 저술 및 자체 콘텐츠 기획 활동 또한 수행하며 다양한 시각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립미술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박물관단지, 신한카드, 대전디자인진흥원,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 내-외의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장영웅

2019년 디자인 스튜디오 노네임프레스를 설립하여 현재 박수연과 함께 공동대표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대전 지역에서 디자인을 공부했고, 현재도 동 지역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한다.

이 환경은 ‘물리적인 조건을 넘나들 수 있는 시각문화’를 만드는 것을 지향하며 지역으로부터 발신하는 이미지 혹은 메세지들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지역의 문화예술 기관을 비롯한 협업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박수연

대전에서 디자인을 공부했고, 이후 서울에서 다양한 형태의 회사를 경험했다. 2020년부터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노네임프레스에 합류하여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다. 경계 없는 시각 언어를 탐구하고, 주변을 살피며 재미있는 일을 도모한다.